

50년 전, 60년 전의 보건세계를 들춰봅니다. 책, 잡지라는 것이 매우 귀하던 시절, 보건세계는 결핵 환우는 물론 보건계, 아니 그저 읽을 텍스트가 필요했던 분들에게 위안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넘쳐나는 책과 잡지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전자책으로 독서를 하는 세상에, 1년에 네 번 발행되는 보건세계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60년 동안 독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지난 60년간 보건세계는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들어올 듯 작은 사이즈와 보건세계 고유 제호, 어느 화가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표지 등은 보건세계의 주된 스타일이었습니다. 중간 중간 변화는 있었지만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2013년 보건세계를 바꿔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판형을 크게 키우고 표지도 지금과는 다르게, 협회만의 무언가를 담아보자, 단 제호는 손글씨로 제작해 주신 분의 뜻을 이어 그대로 가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호, 가을호, 그리고 이번호까지 세 번의 책을 내며 더욱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먼 훗날 보건세계 한 권으로 협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을 만큼, 모두 담아보자,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소프트하게, 재미있게 접근해 보자가 변화의 방향이었는데 그 목표에 얼마만큼 근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세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집실로 전해주세요! ✕

